

2022년 2-1

KIET 경제산업동향

2022. 2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록 >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리스크 점검 및 영향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22.1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2021년중 미국 성장률 5.7%, 중국 8.1% 성장률 기록

- 미국은 12월 실물지표들이 전월과 달리 감소 전환한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6.9%의 성장률을 기록, 연간 전체로 5.7% 성장
- 일본과 유로존은 11월 실물지표들이 동반 증가세를 보인 모습이나, 올 들어 일본과 유로존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경기침체 가능성 우려가 제기
- 중국은 12월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나타낸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4.0%로 3분기 연속 둔화세를 보이고, 연간 전체 성장률은 8.1% 기록
- 달러화는 지난 1월중 美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2월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의 긴축 전환 시사 등으로 유로화 대비 약세 전환
- 유가는 연초 리비아와 카자흐스탄 등지의 원유생산 차질 우려 속에 2월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과 미국 원유재고 감소 전환 등으로 강보합

□ 국내경기 : 2021년 성장률 4.0%, 12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8% 증가

- 4분기 실질GDP는 설비투자의 감소 지속에도 소비와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기비 1.1% 성장, 연간 전체 4.0% 성장
 - 12월 전산업생산이 광공업생산의 증가세에도 서비스업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월비 1.8% 증가, 소매판매는 2.0% 증가, 설비투자는 0.4% 감소

□ 금 용 : 12월 기업대출·가계대출 감소 전환, 2월 초순(2.3~2.10일) 금리 및 원/달러 상승 후 하락

- 12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과 달리 감소 전환하면서 전체 규모 역시 감소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시)도 기타대출이 상당폭 감소하면서 전체 증가 규모가 7개월 만에 감소

○ 국고채(3년) 금리는 1월중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2월 들어서도 추경 이슈 등으로 추가 상승한 이후에 소폭 하락 전환

○ 원/달러 환율은 연초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으로 1,200원을 돌파하고, 2월에도 글로벌 통화긴축 우려 등으로 1,206원대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 전환

□ 산업별 동향 : 12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지속

○ 제조업생산은 전자제품 등에서 감소한 반면에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세를 유지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6.8% 증가

- 제조업ICT 생산은 증가세가 축소, 중공업과 경공업은 동반 확대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와 운수·창고, 숙박·음식점,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 등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5.8% 증가

- ICT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7.1% 증가, 전월비 기준 33.9% 증가

□ 고용 : 12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9% 증가

○ 12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에도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3개월 만에 상승(2.0% → 2.9%, 2014.3월 이후 최고치)

□ 수출입 : 1월 수출 +15.2%, 수입 +35.5%, 무역수지 -49억 달러

○ 올 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5.2% 증가한 553억 달러, 수입이 35.5% 증가한 60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약 4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철강 등 상당수의 주력 품목들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중국·EU·아세안 등지로의 수출이 동반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1월 기준 최고치 증가율(15.2%)을 기록

1. 해외경제

□ 미국 : 12월 실물지표 감소, 4분기 성장률 6.9%, 2022년중 5.7% 성장

○ 12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전월과 달리 감소 전환하고, 체감지표들도 부문간 혼조세가 이어지면서 불안정한 모습. 지난해 4분기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전기비 6.9% 성장률을 기록하고, 연간 전체로 5.7% 성장

- 산업생산은 자동차·부품(-1.3%) 등에서 감소 전환함에 따라 제조업 생산(-0.3%)이 감소하면서 전월비 기준 3개월 만에 감소하고, 소매판매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5개월 만에 감소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신규수주와 생산이 하락하고, 고용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등에서 2020.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미래 기대지수가 상승하면서 전월비 상승 전환
- 비농업 일자리 증가 규모는 전월보다 축소(+19.9만명)된 반면, 실업률이 2020.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경기선행지수가 9개월 연속 상승세
- 지난해 4분기중 소비 증가와 재고 중심의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실질 GDP 성장률이 6.9%로 높아지고, 연간 전체로 1984년 이후 최고치(5.7%)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0	2021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3.4	5.7	6.7 (12.2)	2.3 (4.9)	6.9 (5.5)				
산업생산 (IT생산)	-7.2 (7.1)	5.5 (10.3)	1.6 (3.3)	0.9 (-1.1)	1.0 (0.3)	-1.0 (0.4)	1.2 (-0.3)	0.7 (0.6)	-0.1 (0.3)
내구재수주	-13.6	20.8	3.0	2.8	2.2	-0.4	0.1	3.2	-0.7
소매판매	0.3	19.3	6.5	-0.5	2.1	0.7	1.8	0.2	-1.9
소비자물가	1.2	4.7	2.0	1.6	2.0	0.4	0.9	0.8	0.5
실업률(%)	8.1	5.4	5.9	5.1	4.2	4.8	4.6	4.2	3.9
무역수지(10억US\$)	-676.7	-859.1	-205.2	-223.1	-226.6	-80.8	-66.5	-79.3	-80.7
ISM 제조업지수 ¹⁾	52.5	60.7	60.8	60.2	60.2	61.1	60.8	61.1	58.7
소비자신뢰지수 ²⁾	100.9	112.0	62.3	62.6	65.9	109.8	111.6	111.9	115.8
경기선행지수 ³⁾	106.1	115.5	114.4	117.1	119.9	117.6	119.1	119.9	120.8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11월 실물지표 증가, 코로나 확진자 급증세로 중점조치 단행

- 11월 생산이 전월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소비도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실물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고, 경기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세. 올 들어 日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여파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34개 지역에 걸쳐 2.20일까지 중점조치를 단행(1.25일)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총생산(실질GDP)	-0.2	-4.5	-0.7	0.5	-0.9				
광공업생산	-2.7	-10.6	2.8	1.2	-3.7	-3.6	-5.4	1.8	7.0
민간기계수주	-0.9	-8.5	-5.3	4.6	0.7	-2.4	0.0	3.8	3.4
소매판매	0.1	-3.5	0.4	-2.1	1.2	-4.0	2.8	1.0	1.3
소비자물가	0.5	0.0	0.4	-0.6	0.4	-0.1	0.3	-0.1	0.3
실업률(%)	2.4	2.8	2.8	2.9	2.8	2.8	2.8	2.7	2.8
무역수지(10억엔)	-1,668	480	542	434	-276	-643	-630	-74	-956
경기선행지수 ¹⁾	93.8	88.6	99.7	103.4	101.7	101.2	100.2	101.5	103.0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12월 실물지표 혼조세, 4분기 성장률 4.0%, 연간 8.1% 성장

- 12월 생산 증가세가 전월에 이어 확대된 반면, 투자와 소비·수출 등 수요 지표들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부문간 혼조세를 반영.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2020.3분기(3.1%) 이후 최저치인 4.0%로 3분기 연속 둔화세를 보인 반면에, 연간 전체 성장률은 8.1%를 기록하면서 2011년(9.6%) 이후 최고치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0	2021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국내총생산(실질GDP)	2.2	8.1	7.9	4.9	4.0				
산업생산	2.8	9.6	9.0	4.9	3.9	3.1	3.5	3.8	4.3
고정투자(누계기준)	2.9	4.9	12.6	7.3	4.9	7.3	6.1	5.2	4.9
소매판매	-3.9	12.5	14.1	5.1	3.5	4.4	4.9	3.9	1.7
소비자물가	2.5	0.9	1.1	0.8	1.8	0.7	1.5	2.3	1.5
수출(달러화기준)	3.6	29.9	30.6	24.2	23.0	28.0	26.9	21.7	20.9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11월 실물지표 증가, 코로나 여파로 역내 경기 침체 우려

- 11월 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역내 인플레이션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양상. 역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올들어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을 겪으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점증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총생산(실질GDP)	1.4	-6.5	-0.2	2.2	2.2				
산업생산	-1.1	-7.7	1.3	-0.2	-0.8	-1.7	-0.9	-1.3	2.2
소매판매	2.4	-1.0	-1.1	3.9	0.9	0.8	0.0	0.3	1.0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2	0.3	1.1	1.8	2.8	3.0	3.4	4.1	4.9
무역수지(10억유로)	222.7	234.0	69.3	37.1	27.5	8.8	5.8	1.8	-1.3
경기체감지수 ¹⁾	103.7	88.2	95.3	114.3	118.1	117.6	117.8	118.6	117.6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약세 전환 & 유가 강보합세

- 달러화는 지난 1월중 연준의 조기 긴축에 따른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국제금리 상승과 함께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2월 들어서는 유럽 중앙은행(ECB)의 긴축 전환 시사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 대비 약세 전환
- 유가는 연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와 카자흐스탄 등 지에서의 원유생산 차질 우려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2월 들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와 미국 원유재고 감소 전환 등으로 인해 강보합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1								2022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10일
엔/달러	109.58	111.11	109.72	110.02	111.29	113.95	113.17	115.08	115.11	116.01
달러/유로	1.2227	1.1858	1.1870	1.1809	1.1580	1.1558	1.1338	1.1370	1.1235	1.1428
미 국채 (10년만기)	1.59	1.47	1.22	1.31	1.49	1.55	1.44	1.51	1.78	2.03
WTI유	66.3	73.5	74.0	68.5	75.0	83.6	66.2	77.0	88.2	89.9
두바이유	66.6	73.0	73.3	69.4	75.9	81.9	71.0	76.5	87.5	91.8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2021년 실질GDP 4.0% 성장, 12월 전산업생산 1.8% 증가

○ 4분기 실질GDP는 설비투자의 감소 지속에도 소비와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기비 1.1% 성장, 연간 전체 4.0% 성장

- 설비투자가 전분기(전기비 -2.4%)에 이어 감소세(-0.6%)를 보인 반면에,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각각 2분기와 3분기 만에 증가세(1.7%와 2.9%)를 보이고, 수출도 2020년 4분기 이후 최고치 증가율(4.3%)을 기록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0	2021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	-0.9*	4.0**	6.0* (0.8*)	4.0* (0.3*)	4.1** (1.1**)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5.0*	3.6**	3.7* (3.6*)	3.3* (-0.2*)	6.3** (1.7**)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7.1*	8.3**	12.8* (1.1*)	4.2* (-2.4*)	4.1** (-0.6**)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0.4*	-1.5**	-1.2* (-2.3*)	-1.2* (-3.5*)	-1.7** (2.9**)	-	-	-	-
전산업생산지수	-1.2	-4.8*	7.2 (0.4)	3.9 (0.5)	5.5* (1.6*)	1.4 (1.1)	4.7 (-1.9)	5.4* (3.3*)	6.5* (1.8*)
광공업생산지수	-0.4	6.9*	12.7 (-1.2)	5.1 (0.5)	5.7* (1.0*)	-1.9 (-1.1)	4.5 (-2.9)	6.3* (5.3*)	6.2* (4.3*)
제조업생산지수	-0.3	7.1*	13.2 (-1.2)	5.1 (0.4)	6.0* (1.3*)	-2.0 (-1.3)	4.6 (-2.9)	6.4* (5.6*)	6.8* (4.8*)
서비스업생산지수	-2.0	4.3*	5.7 (1.7)	3.9 (0.9)	5.4* (1.4*)	3.4 (1.4)	5.0 (-0.4)	5.4* (2.1*)	5.8* (-0.4*)
소매판매액지수	-0.2	5.5*	4.4 (2.7)	5.0 (0.1)	6.2* (0.8*)	3.6 (2.4)	7.4 (0.2)	4.6* (-2.0*)	6.5* (2.0*)
설비투자지수	6.0	9.0*	12.7 (0.7)	5.8 (-2.5)	5.8* (-1.2*)	-5.3 (-2.1)	3.0 (-5.0)	9.2* (10.9*)	5.0* (-0.4*)
건설기성액	-4.1	-4.9*	-5.3 (-2.4)	-6.1 (-1.8)	-1.4* (4.6*)	-9.4 (2.3)	0.0 (-1.1)	-6.0* (1.9*)	1.5* (7.4*)
동행종합지수(2015=100)	112.3	116.5*	116.6	117.1	117.8*	117.2	117.1*	117.7*	118.7*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8.7	100.9*	101.2	101.3	101.5*	101.2	101.0*	101.4*	102.1*
선행종합지수(2015=100)	119.5	127.1*	127.1	128.2	128.2*	128.2	128.1*	128.1*	128.3*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0.5	102.1*	102.5	102.4	101.4*	102.1	101.7*	101.4*	101.2*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지난해 12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견조한 증가세(4.3%)를 이어간 영향에도 서비스업생산이 소폭 감소 전환(-0.4%)하면서 전월비 1.8% 증가
 - 광공업생산이 제조업에서 견조한 증가세(전월비 4.8%)를 유지한 데 힘입어 전월비 4.3% 증가한 반면에, 서비스업생산은 다시 감소(-0.4%)
 - 소매판매는 준내구재 판매의 감소(-0.6%)에도 내구재(3.9%)와 비내구재(2.0%) 판매의 동반 증가세로 전월비 2.0%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운송장비(2.7%)의 증가에도 기계류(-1.3%)의 감소 영향으로 0.4% 감소
 - 동행종합지수가 비농림어업 취업자수의 감소에도 광공업생산지수와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한 데 힘입어 전월비 0.8% 상승하고, 선행종합지수도 코스피지수와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하락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등이 상승한 데 힘입어 전월비 0.2% 상승

□ 물가 : 1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6%, 전년동월비 3.6% 상승

- 올 1월 소비자물가는 교통(-0.3%)과 통신(0.0%)을 제외하고 식료품·비주류음료(1.2%)와 보건(1.1%), 음식·숙박(1.0%), 주택·수도·전기·연료(0.3%)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월비 0.6% 상승(전년동월비 3.6%)
-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전월비 2.6%)에서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고, 서비스(0.3%)도 상승률이 더 높아진 반면, 공산품(-0.6%)에서는 2020.5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면서 전월비 보합(전년동월비 9.0%)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소비자물가	0.5	2.5	2.5 (0.5)	2.6 (0.8)	3.5 (1.0)	2.6 (0.5)	2.4 (0.4)	3.2 (0.2)	3.8 (0.5)	3.7 (0.2)	3.6 (0.6)
근원물가	0.7	1.8	1.4 (0.6)	1.8 (0.5)	2.6 (0.9)	1.9 (0.3)	2.0 (0.2)	2.8 (0.3)	2.4 (0.2)	2.7 (0.4)	3.0 (0.5)
생산자물가	-0.5	6.4*	6.4 (2.5)	7.4 (2.0)	9.3* (1.9*)	7.4 (0.5)	7.6 (0.4)	9.1 (1.0)	9.8 (0.7)	9.0* (0.0*)	-
근원물가	-0.1	6.0*	6.0 (2.7)	7.3 (1.9)	8.4* (1.5*)	7.3 (0.5)	7.5 (0.3)	8.3 (0.9)	8.7 (0.4)	8.1* (0.0*)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12월 기업대출·가계대출 감소 전환

- 12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과 달리 감소 전환하면서 전체 규모 역시 2020.1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21.11월 +9.1조원 → 21.12월 -2.8조원, 대기업 -1.7조원, 중소기업 -1.0조원)
 - 대기업 대출은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 등의 영향으로 2021.6월 이후 6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중소기업대출도 시설자금 수요 지속과 개인사업자 대출 수요 등에도 불구하고 2020.1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 회사채 발행은 투자기관의 연말 복클로징 등의 영향으로 순상환 지속
(21.11월 -0.2조원 → 21.12월 -0.8조원)
- CP·단기사채 역시 전월과 달리 순상환 기조로 전환
(21.11월 +0.7조원 → 21.12월 -3.0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유상증자를 중심으로 축소
(21.11월 +2.3조원 → 21.12월 +0.6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12월말 잔액	
	연중	12월	연중	12월	연중	10월	11월 12월		
■ 은행 원화대출	44.9	-6.2	107.4	-5.6	89.3	10.3	9.1	-2.8	1,065.7
(대 기 업)	-2.4	-2.2	19.5	-5.0	7.5	2.3	2.8	-1.7	179.3
(중소기업)	47.3	-3.9	87.9	-0.6	81.8	8.0	6.4	-1.0	886.4
<개인사업자>	24.7	0.8	47.5	1.9	37.0	2.6	2.7	1.1	423.0
■ 회사채 순발행	15.8	-0.6	15.5	0.3	16.2	0.2	-0.2	-0.8	..
■ CP·단기사채 순발행	0.3	-5.6	2.3	-0.7	4.1	-1.0	0.7	-3.0	32.7
■ 주식발행	6.3	0.7	11.0	3.0	28.9	1.1	2.3	0.6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12월중 금융시장 동향).

- 12월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증가 규모가 줄어들고, 기타대출이 감소 전환하면서 전체 증가 규모가 7개월 만에 감소
(21.11월 +2.9조원 → 21.12월 -0.2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전세 관련 자금수요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거래 둔화와 집단대출 취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1.11월 +2.4조원 → 21.12월 +2.0조원)
- 기타대출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지속,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감소
(21.11월 +0.5조원 → 21.11월 -2.2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12월말 잔액	
	연중	12월	연중	12월	연중	10월	11월		12월
은행 가계대출	60.7	7.2	100.6	6.7	71.8	5.2	2.9	-0.2	1,060.7
■ 주택담보대출	45.7	5.6	68.3	6.3	56.9	4.7	2.4	2.0	778.8
■ 기타대출	15.1	1.6	32.4	0.4	14.7	0.5	0.5	-2.2	280.7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12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2월 초순(2.3~2.10일) 금리 & 원/달러 상승 후 하락

- 국고채(3년) 금리는 지난 1월중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과 연준의 조기 긴축 가능성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2월 들어서도 추정 이슈 등으로 추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소폭 하락
(2.3일 2.16% → 2.10일 2.26%, +0.10%p)
- 원/달러는 연초 글로벌 달러화 강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1,200원을 돌파한 이후 하락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약세와 글로벌 통화긴축 우려 등으로 1,206원대까지 상승(1년 8개월 만에 최고치)한 이후 하락
(2.3일 1,206.4원 → 2.10일 1,196.5원, -9.9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0		2021					2022	
	4/4	1/4	2/4	3/4	10월	11월	12월	1월	2.10일
국고채(3년)	0.98	1.13	1.45	1.59	2.10	1.80	1.80	2.19	2.26
회사채(3년,AA-)	2.21	2.06	1.97	2.05	2.57	2.37	2.42	2.77	2.85
CD(91일)	0.66	0.75	0.68	1.04	1.12	1.26	1.29	1.50	1.50
CP(91일)	1.09	1.00	0.97	1.18	1.24	1.49	1.56	1.64	1.64
원/달러	1,086.3	1,131.8	1,126.1	1,184.0	1,168.6	1,187.9	1,188.8	1,205.5	1,196.5
원/100엔	1,054.3	1,027.3	1,022.1	1,058.2	1,031.7	1,049.6	1,030.2	1,042.8	1,035.1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증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12월중 전년동월비 +6.8%, 전월비 +4.8%

○ 제조업생산은 전자부품(전년동월비 -4.2%), 통신·방송장비(-4.8%), 1차금속(-1.0%)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31.5%), 자동차(8.0%), 기계장비(3.9%), 화학제품(4.7%) 등에서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6.8%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9.0%)에서 증가세가 전월(20.1%)보다 축소된 반면에, 중공업(7.6%)과 경공업(3.6%)은 증가세가 동반 확대

- 전월비 기준으로는 1차금속(-1.1%) 등 소수 업종들을 제외하고 반도체(8.0%)를 비롯해서 자동차(7.3%), 전자부품(7.0%), 기계장비(4.1%), 화학제품(4.0%), 섬유제품(3.4%)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4.8%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4.9)는 반도체와 자동차, 화학제품 등 주력 업종에서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에도 전자부품과 금속가공 등에서 하락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년동월비 0.7%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0.1%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이 12월중 112.6%로 전월보다 2.9%p 하락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 증가폭이 확대(1.9% → 3.3%,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되고, 재고 증가폭 역시 크게 확대(9.3% → 11.0%)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8.7%로 전월대비 3.5%p 상승

□ 서비스업생산 : 12월중 전년동월비 +5.8%, 전월비 -0.4%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전년동월비 4.2%), 운수·창고(12.0%), 정보통신(7.3%), 숙박·음식점(38.4%), 전문·과학·기술서비스(4.7%),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4.6%)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세를 유지한 데 힘입어 5.8%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는 도소매(0.7%), 전문·과학·기술서비스(2.2%) 등에서 증가한 반면에, 운수·창고(-0.2%)와 숙박·음식점(-11.8%), 정보통신(-1.0%) 등 다수 업종에서 전월과 달리 동반 감소한 영향으로 재차 감소(-0.4%)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7.1%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33.9%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9년)	2020	2021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6.3	113.6	113.7	111.8	119.3	113.9	118.5	125.4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4	6.9	12.7	5.1	5.7	4.5	6.3	6.2	4.3
제조업 (원지수)	9,484.5	106.3	113.8	114.4	112.1	119.7	114.6	118.9	125.5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3	7.1	13.2	5.1	6.0	4.6	6.4	6.8	4.8
섬 유	135.0	-10.5	6.4	25.0	4.6	3.8	0.1	4.9	6.2	3.4
화 학	883.8	-3.0	7.5	15.7	7.8	4.6	2.0	7.1	4.7	4.0
철 강	454.3	-6.3	6.0	13.3	12.0	1.8	2.4	3.0	-0.2	-1.9
반도체	1,285.6	22.7	29.7	27.2	33.9	34.2	37.7	33.9	31.5	8.0
컴퓨터, 주변장치	31.3	-7.9	-1.6	8.8	-6.5	-5.2	-12.0	3.7	-6.3	-2.1
통신, 방송장비	131.5	-11.3	21.1	41.7	18.7	4.2	9.2	8.8	-4.8	14.9
의료, 정밀, 광학	218.0	3.9	18.8	31.7	14.8	12.6	8.8	20.0	9.4	-3.6
기계, 장비	819.2	3.6	10.1	18.4	6.8	5.7	7.7	6.2	3.9	4.1
자동차	981.6	-10.0	4.6	22.5	-8.7	-3.3	-13.3	-3.9	8.0	7.3
조 선	206.3	8.6	-16.9	-17.6	-22.7	-11.7	-13.7	-12.4	-9.4	2.4
- 중 공 업	-	0.6	8.3	14.4	6.6	6.9	5.5	7.2	7.6	5.3
- 경 공 업	-	-4.0	1.8	7.4	-1.7	2.1	-0.1	2.7	3.6	2.3
- 제조업ICT	-	11.9	18.9	19.9	20.9	20.2	21.5	20.1	19.0	6.5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6.2	110.8	110.8	110.0	116.5	111.7	114.7	123.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2.0	4.3	5.7	3.9	5.4	5.0	5.4	5.8	-0.4
도소매	211.3	-2.6	4.0	5.2	3.7	4.1	4.1	4.0	4.2	0.7
운수및창고	90.3	-14.2	6.5	11.0	6.9	10.6	9.8	9.9	12.0	-0.2
숙박및음식점	61.6	-18.5	1.4	1.5	-1.3	18.8	7.4	14.3	38.4	-11.8
정보통신	79.9	1.5	5.1	3.9	6.9	7.4	6.8	8.2	7.3	-1.0
금융및보험	140.9	14.0	8.5	9.7	6.3	3.7	6.9	4.8	-0.1	-0.4
부동산	31.8	5.5	0.8	5.7	0.4	0.1	2.9	1.2	-3.4	-2.1
전문·과학및기술	71.0	0.1	2.6	4.2	0.2	3.6	1.7	3.8	4.7	2.2
사업시설관리 등	47.7	-9.9	2.3	5.6	2.9	4.8	4.6	5.2	4.6	1.1
교 육	106.0	-4.7	1.9	3.0	1.8	2.5	1.4	2.5	3.5	-0.1
보건및사회복지	94.3	1.4	3.2	3.1	4.6	4.3	3.4	4.0	5.4	0.9
예술·스포츠및여가	21.7	-32.6	6.9	20.6	7.2	19.5	13.8	14.5	31.3	4.6
협화·수리및개인	32.1	-8.2	1.1	0.3	-0.4	5.4	5.1	5.3	5.7	-2.9
수도·하수및폐기물	11.4	3.3	2.5	6.1	3.8	-0.2	-4.0	2.3	1.3	-0.4
- ICT서비스업	-	4.9	5.7	4.4	6.5	7.6	7.9	7.8	7.1	33.9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5. 고용

□ 취업자 수 : 12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2.9% 증가

○ 12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에도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3개월 만에 상승(2.0% → 2.9%, 2014.3월 이후 최고치)

-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세는 전월보다 둔화(1.2% → 0.8%)
- 농림·어업에서의 취업자 증가율이 전월보다 더 높아지고(2.1% → 2.7%),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추가적으로 확대(2.2% → 3.4%)
- 건설업의 취업자 수도 전월보다 확대(0.8% → 1.9%)된 데 이어,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감소폭 역시 현저하게 축소(-3.7% → -0.2%)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은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 취업자 감소세(-6.3% → -5.0%)가 이어지고,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11.6% → 7.6%)된 영향에도 교육서비스(5.9% → 6.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7.4% → 7.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1.8% → 5.0%)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된 데 힘입어 전체 증가율이 더욱 상승(3.8% → 4.3%)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8%로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0	2021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산업	26,904	27,273	27,467	27,645	27,611	27,603	27,683	27,741	27,795	27,298	
전년동기비	-0.8	1.4	2.3	2.1	2.4	1.9	2.5	2.4	2.0	2.9	
농림·어업	3.6	0.9	0.2	1.6	2.0	2.4	1.4	1.3	2.1	2.7	
제조업	-1.2	-0.2	0.1	-0.8	0.6	-1.7	-0.8	-0.3	1.2	0.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0	1.7	2.9	2.8	2.9	2.6	3.2	3.0	2.2	3.4	
건설업	-0.2	3.7	7.0	4.5	1.7	6.1	2.7	2.5	0.8	1.9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3	-3.5	-2.4	-2.6	-1.9	-2.7	-1.5	-1.7	-3.7	-0.2	
전기·운수·통신·금융	0.7	5.6	5.2	6.9	8.3	6.4	8.3	9.0	8.5	7.3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0.9	3.0	4.3	4.1	4.0	3.7	4.3	3.9	3.8	4.3	
실업률 (계절조정, %)	4.0	3.6	3.7	3.0	3.4	2.8	3.0	3.2	3.1	3.8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1월 수출 15.2% 증가, 수입 35.5% 증가, 무역수지 -49억 달러

○ 올 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5.2% 증가한 553억 달러, 수입은 35.5% 증가한 602억 달러, 무역수지는 약 4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철강 등 상당수의 주력 품목들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중국·EU·아세안 등지로의 수출이 동반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1월 기준 4년 만에 최고치 증가율(15.2%)
- 수입도 에너지 가격 급등과 수출 호조에 따른 중간재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인해 두 자릿수 증가율이 지속(12개월 연속)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81.3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55.9% 상승하고, 도입물량이 19.9%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은 86.9% 증가한 약 75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수출	5,125 (-5.5)	6,444 (25.7)	1,567 (42.1)	1,645 (26.5)	1,767 (24.6)	559 (16.9)	557 (24.2)	604 (31.9)	607 (18.3)	553 (15.2)
수입	4,676 (-7.1)	6,150 (31.5)	1,492 (37.7)	1,569 (37.5)	1,724 (39.4)	516 (31.1)	538 (37.7)	574 (43.6)	612 (37.1)	602 (35.5)
무역수지	449	294	75	76	44	43	18	30	-5	-4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1월 실적은 잠정치 기준.

□ 13대 품목중 반도체·철강·일반기계 등 10개 품목 수출 두 자릿수 증가율

○ 반도체 : 높은 수준의 D램 가격 유지와 모바일 수요 증가, 파운드리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이 19개월 연속 증가

○ 자동차 :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국내 공장들의 생산라인 증설에 따른 가동중단에도 불구하고, SUV·친환경차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3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세

- **자동차부품** :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의 지속에도 국내 기업들의 현지 생산 차종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이 5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선박류** : 물동량 증가와 친환경 정책 강화 등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수주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주-인도간 시차와 전년동월 선박 수출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세
- **디스플레이** : 국내 기업들이 기술우위를 보유한 OLED 수요가 TV와 모바일용 하이엔드 제품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
- **무선통신기기** : 신제품 발매에 대비한 선제적 수출효과 등에 힘입어 특히 중국 등지로의 부품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이 15개월 연속 증가세
- **철강** : 철광석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석탄 가격에 따른 단가 상승과 전방산업들(건설·기계 등)의 견조한 수요 등에 힘입어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세
- **섬유** : 글로벌 의류 수요 회복으로 아세안·중국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단가 상승이 가세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
- **석유제품** :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출단가도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글로벌 에너지 수요 역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세
- **석유화학** :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의 동반 상승세 속에 전방산업들의 경기 회복으로 합성수지·합성고무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중국·아세안 등지로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세
- **일반기계** : 공작기계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의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기 부양책 실행 등에 힘입어 특히 미국·EU·중남미 등지로의 건설기계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한국산 프리미엄 제품의 시장 선호와 신규 변이 확산에 따른 소비 특수 등에 힘입어 미국·아세안 등지로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노트북·PC 등 비대면 수요의 둔화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업용 SSD 성장세 지속과 차세대 SSD 출시 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이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자동차	-13.1	24.2	74.8	6.5	4.9	-6.1	-4.7	3.3	17.3	2.3
자동차부품	-17.3	22.2	123.1	14.8	-1.4	-5.1	-1.2	-2.2	-1.0	14.2
선박류	-2.0	16.4	11.9	-1.4	22.9	-40.4	6.4	237.7	-49.0	-77.9
일반기계	-8.9	10.8	21.2	15.6	9.9	7.7	12.6	11.6	6.1	14.1
철 강	-14.5	37.0	50.4	45.1	47.7	41.6	48.5	45.7	48.9	50.1
석유화학	-16.4	54.8	80.3	64.1	54.1	52.3	69.2	62.9	34.2	40.0
석유제품	-40.6	57.7	112.6	71.6	113.1	84.8	148.1	121.7	79.4	88.4
섬 유	-13.3	14.0	46.0	9.9	16.8	-3.8	21.7	16.9	12.6	22.3
가 전	0.7	24.0	66.5	11.7	15.3	-4.1	13.7	20.9	11.6	21.2
무선통신기기	-6.4	22.9	38.5	25.7	12.1	19.6	15.5	16.4	4.8	1.9
컴퓨터	57.2	25.2	8.9	34.0	56.5	49.4	52.6	73.5	44.7	49.4
반도체	5.6	29.0	29.7	36.3	34.6	28.2	28.8	40.1	35.1	24.2
디스플레이	-12.2	18.9	36.0	25.2	5.8	17.3	5.3	10.4	2.0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1월 실적은 잠정치 기준.

부록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리스크 점검 및 영향
----	----------------------------------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2022.1.13일)

○ 미국을 필두로 한 물가 상승 움직임이 글로벌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

미국	('21.1월) 1.4 → (3월) 2.6 → (8월) 5.3 → (10월) 6.2 → (11월) 6.8
유로존	('21.1월) 0.9 → (7월) 2.2 → (8월) 3.0 → (10월) 4.1 → (11월) 4.9
중국	('21.1월) -0.2 → (8월) 1.9 → (9월) 0.6 → (10월) 0.5 → (11월) 1.4
일본	('21.1월) -0.7 → (8월) -0.3 → (9월) -0.4 → (10월) 0.2 → (11월) 0.1
한국	('21.1월) 0.9 → (4월) 2.5 → (8월) 2.6 → (10월) 3.2 → (11월) 3.8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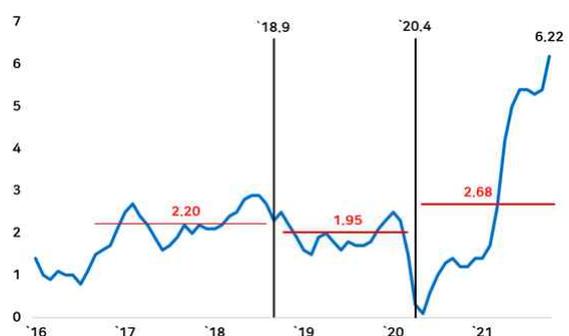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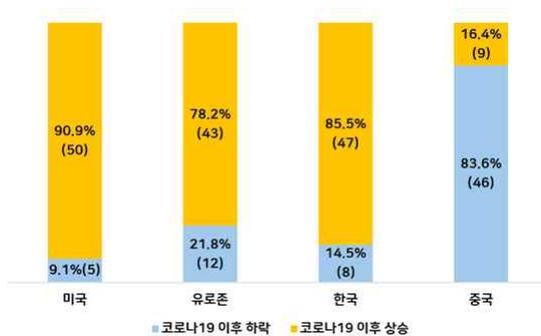
주: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비 상승률(%).

○ 일부 국가(한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정책 대응을 시작했으며, 다른 국가들(미국, 유로존)은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며 정책 대응을 고민하기 시작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특징**

- 공급 병목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워드 코로나로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
- **(요인 분석)** 선진국 공통요인 강화에 기인, 글로벌 공통요인의 영향력 확대
 - 과거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때도 글로벌 공통요인이 증가한 바 있음.
- **(상관관계 분석)** 주요국들이 대부분 국가간 CPI 상승률의 상관관계가 강화
 - 중국도 인플레이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의 물가 통제로 낮은 수준 유지
- **(구조변화 분석)**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구조적 변화 발생, 다른 국가들은 물가 상승 기간이 짧아 관측되기에 이른 단계로 판단

< 코로나19 전후 CPI 상관관계 변화 > < 美 구조변화 시점별 인플레이율(%) >



자료: IBK경제연구소

주: 표본기간 '11.1월~'21.10월, '20.4월 전후 비교.

자료: IBK경제연구소

주: 표본기간 '11.1월~'21.10월, Wdmax test 이용.

□ 글로벌 인플레이션 원인 점검

- 세계화에 따른 저가상품 공급, 디지털 경제 확산,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낮은 기대인플레이션) 등은 글로벌 저물가 시대를 이끌었던 주된 요인
 - GVC 재편·脫세계화는 물가상승 요인, 비대면·ICT 가속은 물가하락 요인
- **(경기 회복)** 정부의 재정지원과 펜트업(pent-up) 수요에 힘입어 내구재 소비가 늘었고, 백신 보급 확대와 감염병 일상화로 서비스 소비 역시 확대
- **(공급망 관리비용 증가)** 기업들이 생산 복원력에 대비한 재고관리, 니어쇼어링(near-shoring) 확대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
- **(노동공급 부족)** 선진국(미국, 영국 등)에서는 감염 우려, 보육 부담, 조기 은퇴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 등으로 임금이 상승
- **(유가 상승)** 주요국들의 경제활동 재개로 에너지 수요가 늘었지만, 생산 차질, 투자 감소, 친환경 전환 등 공급 부족으로 수급불균형이 발생
-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 원유·석탄은 탄소중립 이행, 천연가스는 친환경 전환 과도기, 신재생에너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극적 투자가 진행
- **(자산가격 상승)** 대규모 양적완화, 정부지출 확대로 자산가격이 급등했고, 부동산가격 상승은 임대료를 매개로 향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

□ 결론 및 영향

- 인플레 압력은 완화되겠지만, 변이 확산 및 高물가로의 구조변화가 변수
- 코로나 영향은 학습효과, 대항백신 개발, 경구용 치료제 승인으로 점감

〈 영국의 신규 확진자 수와 도소매/여가시설 방문 지수 추이 〉



자료: Our World in Data, Google Community Mobility.

주: 7일 이동평균, 방문 지수 기준값은 5주간 해당요일에 수집된 데이터의 중앙값.

- **(금융시장)** 통화 긴축, 안전자산 선호로 시장금리 상승 및 원화 약세 전망
- **(중소기업)** 高물가, 高환율, 高금리는 중소기업에 삼중고가 될 가능성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2.14)	(2.15)	(2.16)	(2.17)	(2.18)
 12월 산업생산	 21.4분기 실질GDP (잠정치)  12월 산업생산(수)  12월 소매판매(수)  12월 수출입통계	 1월 산업생산  1월 소매판매  1월 소비자물가  1월 고용동향	 1월 무역수지(잠)  12월 기계수주	 1월 소비자물가  1월 경기선행지수
(2.21)	(2.22)	(2.23)	(2.24)	(2.25)
	 1월 소비자신뢰지수  2월 소비자동향조사	 1월 소비자물가(수)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21.4분기 실질GDP (수정치)  1월 생산자물가  금융통화위원회	 1월 무역수지(수)  12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2월 경제체감지수  1월 내구재수주(잠)  1월 개인소비
(2.28)	(3.1)	(3.2)	(3.3)	(3.4)
 1월 산업생산(잠)  1월 소매판매(잠)	 2월 ISM 제조업지수  2월 수출입통계	 2월 소비자물가(예)  1월 산업활동동향	 1월 소매판매  1월 실업률  2월 ISM 서비스업지수  21.4분기 실질GDP (잠정치)	 1월 실업률  2월 고용보고서  2월 소비자물가
(3.7)	(3.8)	(3.9)	(3.10)	(3.11)
 1-2월 수출입통계	 1월 경기선행지수 (잠정치)  1월 무역수지	 2월 소비자물가  21.4분기 실질GDP (수정치)	 ECB 통화정책회의  2월 소비자물가	